

# 《漢書·古今人表》 찬술 배경 고찰\*

朴晟鎭\*\*

---

## ◁ 목 차 ▷

---

- I. 서론
  - II. 〈古今人表〉의 구성과 논쟁
    - 1. 〈古今人表〉의 구성 및 서문 분석
    - 2. 〈古今人表〉에 대한 비판 개술
  - III. 〈古今人表〉 찬술 배경과 《史記》의 관계
    - 1. 班氏 부자의 사마천 비판 분석
    - 2. 《漢書》의 취지에 대한 검토
    - 3. 〈古今人表〉 찬술 의도 재분석
  - IV. 결론
- 

## I. 서론

본고는 《漢書·古今人表》의 찬술 배경과 의도를 규명하고자 기획된 글이다. 〈古今人表〉는 《漢書》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논쟁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일찍이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고 朝鮮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 또한 현대에도 〈古今人表〉에 대하여 몇 가지 논문들이 그것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이런 문장들을 접하면서 班固가 일견 무리하게 보일 정도로 많은 인물을 망라하여 9등급으로 나누어 배열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古今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漢代의 인물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등등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다만 기존의 설들은 필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그 논지의 전개 방향이 거리가 있었다. 이에 나름의 답안을 찾아본 결과를 본고에서 개진해 보

---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여자대학교 중문과 조교수

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古今人表〉의 작성은 班彪부터 시작된 班氏 一家의 司馬遷에 대한 비판이 그 근저에서 작용하였다는 줄거리를 피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필자는 〈古今人表〉가 《史記》와 《漢書》의 평가에 대한 평가나 우열을 다루는 논쟁사에서 하나의 전환점 역할을 하였음을 감지하였다. 종래에 《史記》와 《漢書》에 대한 비교나 우열에서는 문장이나 풍격 혹은 사상적인 차이가 중시되었다. 이는 지금도 타당하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동감한다. 그러나 〈古今人表〉가 《漢書》에 대한 비판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은 다수가 간과했다고 판단한다. 이 점도 필자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문에 앞서 〈古今人表〉를 다룬 현대의 논문에 대하여 개술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丁毅華의 《漢書·古今人表》識要<sup>1)</sup>, 劉詠聰의 《漢書》斷代爲史說獻疑-〈古今人表〉之撰作爲例<sup>2)</sup>, 翁聖峯의 《漢書·古今人表》試論<sup>3)</sup>, 王記錄의 《漢書·古今人表》撰述趣旨新探<sup>4)</sup>이 있다. 유관 학위 논문으로는 張蓓蓓 博士論文 《漢晉人物品鑒研究》에서 약 50여 쪽을 《漢書·古今人表》에 할애하여 소개하였다.<sup>5)</sup> 이 중 王記錄의 논문이 필자와 의도와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논문의 서두는 필자의 의구심과 근접한 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그의 결론은 《漢書》가 《史記》의 '通古今之變'을 이어서 會通을 지향하는 斷代史를 지향한 결과 〈古今人表〉가 탄생된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는 필자의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반대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sup>6)</sup> 이상 〈古今人表〉에 대한 논문들은 필자에게 많은 계발을 주었으나 기본적으로 취지

- 1) 《華中師範大學學報》1987 제5기, 54-60쪽. 〈古今人表〉의 기본적 성격과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2) 《文獻》1988 제1기, 78-85쪽. 《漢書》를 단대사라는 틀로 제한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 3) 《國文學報》(輔仁大學 中文系) 1998 제13집, 177-212쪽. 〈古今人表〉의 분류방식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었다.
- 4) 《山西師範大學報》1996 제23권 2기.
- 5) 臺灣大學中文研究所 博士論文, 1983. 이 논문은 오로지 〈古今人表〉를 다룬 논문은 아니지만 〈古今人表〉를 언급했다. 張蓓蓓는 다시 〈漢書古今人表對《論語》中人物的品第〉(《孔孟月刊》1985 제24권 3기)에 발표했는데, 역시《漢書·古今人表》를 다루었으나 그 내용은 《論語》에 편중된 것이다.
- 6) 이런 의견은 《二十五史導讀辭典》北京, 華齡出版社, 1991년, 91쪽에 먼저 나타난다.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기타 자료로 대륙의 國學網에서 찾은 陳嘉禮 《漢書·古今人表》考論은 학술지 출처를 알 수 없어 각주로만 소개한다. 그는 〈古今人表〉가 貫通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今人을 평가하는 기능을 했다고 판단한다.

와 결론이 현격히 다르다. 이외 〈古今人表〉만을 다룬 중요한 저작으로는 淸 梁玉繩,《漢書人表考》<sup>7)</sup>와 王利器·王貞珉 著,《漢書古今人表疏證》<sup>8)</sup>을 들 수 있는데 〈古今人表〉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참고서라 하겠다.

## II. 〈古今人表〉의 구성과 논쟁

〈古今人表〉를 다루기 전에 앞서 간단히 《漢書》에 대한 개략을 살펴본다. 班固(32-92)는 後漢 초대 황제인 光武帝 建武 8년에 태어나, 和帝 永元 2년에 세상을 떠났다. 사마천과 약 180년 정도 간격이 있다. 《漢書》 말미의 〈敘傳〉에는 대대로 이어온 班氏의 사적과 반고의 생애에 대한 소개, 《漢書》의 집필의도가 기록되어 있다. 반고의 부친 班彪는 《史記》 後傳 65권을 완성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반고가 이어서 《漢書》를 썼으나, 완성 전 반고가 옥중에서 죽자 누이동생 班昭와 馬續이 마무리 하였다. 도합 100편인데 12本紀, 8表, 10志, 70列傳으로 이루어졌으며, 漢 高祖 元年부터 王莽의 地皇 4년에 이르는 斷代史이다.<sup>9)</sup> 대체로 보아서 《漢書》의 체제는 《史記》를 많이 계승하고 있지만, 《史記》에는 없는 독특한 내용이 더해진 부분도 있다. 그 중 志에서는 〈藝文志〉와 表에서는 〈古今人表〉가 가장 돋보인다.

### 1. 〈古今人表〉의 구성 및 서문 분석

〈古今人表〉는古今의 인물을 아홉 단계로 평가한 표이다. 《漢書》는 斷代史지만, 이 〈古今人表〉에서는 宓羲[伏羲]씨를 필두로 한 五帝시대부터 秦나라 멸망시까지

7) 梁玉繩《漢書人表考》, 北京, 中華書局, 1985(叢書集成新編 110冊).

8) 王利器·王貞珉《古今人表疏證》, 濟南, 齊魯書社, 1988 이 책은 〈古今人表〉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고증하고 주석한 집대성적 저작으로 〈古今人表〉 연구에는 필수적 공구서라 하겠다.

9) 《漢書·敘傳》: 「漢紹堯運, 以建帝業, 至於六世, 史臣乃追述功德, 私作本紀, 編於百王之末, 廁於秦、項之列. 太初以後, 闕而不錄, 故探纂前記, 綴輯所聞, 以述漢書, 起元高祖, 終於孝平王莽之誅, 十有二世, 二百三十年, 綜其行事, 旁貫五經, 上下洽通, 爲春秋考紀、表、志、傳, 凡百篇。」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漢書》는 기본적으로 반고의 손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지 범위에 넣고 있다.

〈古今人表〉는 세로축이 上上聖人·上中仁人·上下智人·中上·中中·中下·下上·下中·下下愚人의 아홉 등급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같은 행에 있으므로 위 아래로 비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上上 聖人は 15명으로 전설적 임금들과 공자가 마지막에 자리한다.<sup>10)</sup> 그 뒤로 성인은 없다. 시대순으로 보아 공자가 역사적 인물로는 마지막 성인이다. 따라서 그 뒤에 나온 인물들은 당연히 공자 아래에 처하게 된다. 우선 〈古今人表序〉를 살펴본다.

문자가 기록된 이래 옛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경전과 주석서에서 일컬어지는 경우이며 당우 이전의 제왕들은 호나 시가 있었다. 제왕을 보좌했지만 그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先秦 諸子書에는 그들을 언급한 경우가 많고 비록 공자의 책에 나타나지 않아도 역시 문헌에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 요점은 선을 드러내고 악을 비취서 뒷사람들을 권계하는데 있다. 그래서 지금 널리 그것을 채록한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聖人이니 仁人이니 하는 말을 내가 감히 어떻게 감당하겠느냐”<sup>11)</sup> 또 이렇게도 말했다. “어찌 仁을 일삼느냐. 聖人이 되려고 해야지” “아직 알지 못하겠다. 어찌 仁을 얻었겠느냐” “나면서부터 이는 자는 上等인 자이다. 배워서 이는 자는 그 다음이다. 고생해서 배우는 자는 또 그 다음이다. 고생해도 배우지 않는 자는 백성 가운데 下等한 자로 친다.”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中人 이상이라야 上에 대해 말할 수 있다.” “上智와 下愚만은 바뀔 수가 없다.” 이 구절들에 대한 주석서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비유하자면 堯, 舜, 禹, 稷, 禹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선을 행하면 이뤄지지만 鮪이나 謹兜 같은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려 하면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더불어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함께 악을 행할 수는 없는 자를 上智라고 한다. 桀紂, 龍逢, 比干과 같은 자들과 선을 행하려 하면 죽음을 당하고 于莘, 崇侯 같은 자들과 악을 행하면 이뤄진다. 이렇게 함께 악을 행할 수는 있지만 더불어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를 下愚라고 한다. 제환공의 경우는 관중이 그를 돕자 覇者가 되었으나 豎貂가 보좌하자 나라가 어지러워 졌다. 이렇게 더불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를 中人이라고 한다.

10) 현재 통행되는 中華書局本 《漢書》에는 14명이지만, 王先謙의 《漢書補注》에는 15인이다. 王利器의 《古今人表疏證》에도 15인으로 되어 있다.

11) 해당 원문은 《論語》의 〈述而〉, 〈雍也〉, 〈公冶長〉, 〈季氏〉, 〈雍也〉, 〈陽貨〉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여기에 아홉 등급으로 차례를 매겼는데 경전과 주석서를 모두 연구해서 시대 순으로 늘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고금의 개요를 총괄해서 수록했다고 말할 수 있다.(自書契之作，先民可得而聞者，經傳所稱，唐虞以上，帝王有號諡，輔佐不可得而稱矣，而諸子頗言之，雖不考庠孔氏，然猶著在篇籍，歸乎顯善昭惡，勸戒後人，故博采焉。孔子曰：若聖與仁，則吾豈敢。又曰：何事於仁，必也聖乎。未知，焉得仁。生而知之者，上也。學而知之者，又其次也。困而不學，民斯爲下矣。又曰：中人以上，可以語上也。唯上智與下愚不移。傳曰：譬如堯、舜、禹、稷、禹、稷、禹與之爲善則行，鯀、讎兜欲與爲惡則誅，可與爲善，不可與爲惡，是謂上智。桀紂、龍逢、比干欲與之爲善則誅，于莘、崇侯與之爲惡則行，可與爲惡，不可與爲善，是謂下愚。齊桓公，管仲相之則霸，豎貂輔之則亂，可與爲善，可與爲惡，是謂中人。因茲以列九等之序，究極經傳，繼世相次，總備古今之略要云.)

이상이 반고가 〈古今人表〉의 대상인물 범위와 등급의 기준에 대하여 밝힌 서문이다. 우선 유가서적에 보이는 인물들만을 범위로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모든 전적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를 작성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女媧나 黃帝 등의 인물도 포함된다. 翁聖峯은 〈古今人表〉에 수록된 인물이 1587명이라고 했다.<sup>12)</sup> 이것은 先秦시기 대부분의 인물이 총망라된 것으로 당시에는 인물백과사전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다음으로는 인물의 선악으로 등급을 나눈 것과 그 기준으로 공자의 언론을 표방한 것이다. 필자가 각주에 표시한대로 모두 《論語》에 나오는 말들이다. 顏師古도 注에서 「인용한 것들은 반씨의 자술로 성인, 인인, 지인, 우인의 순서로 표시한 것은 모두 공자에 의탁한 것이다.(凡引此者，蓋班氏自述 所表先聖後仁乃智愚之次，皆依於孔子者也)」라고 명언하고 있으니 〈古今人表〉의 기준은 공자에 두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인물을 아홉 등급으로 나눈다고 할 때의 '九'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또 上中下 세 등급은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상중하의 경우는 〈古今人表〉의 서문에서 나타난 공자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모두 《論語》에 실린 말들이니 따로 부연할 필요가 없다. 九의 문제는 여러 설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東漢 초기를 기준으로 가장 오래 된 것을 거슬러 보거나 명분상 우월한 것을 생각할 때 아마도 《周禮·春官·

12) 《漢書·古今人表》 試論. 梁玉繩은 《漢書人表考》에서 「班氏廣征典籍，搜列將及二千人」이란 말로 2000여명을 거론했다.

典命》이나 《禮記·王制》에 보이는 ‘九命’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구명이란 九等으로 나눈 周代의 官爵으로, 上公을 九命, 王의 三公을 八命, 侯伯을 七命, 왕의 卿을 六命, 子男을 五命, 왕의 大夫 및 公의 孤를 四命, 公侯伯의 卿을 三命, 公후백의 大夫 및 子男의 卿을 再命 곧 二命, 公후백의 士 및 子男의 大夫를 一命으로 하는 아홉 등급이다.<sup>13)</sup> 유교에서는 周왕조가 理想 왕조이다. 따라서 인물의 등급을 표로 만들려고 했을 때 《周禮》나 《禮記》에 보이는 九命이 본보기가 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즉 공자와 《周禮》에 근거한 것이기에 그 틀의 논리는 반고 스스로 보기에 유가 기준에 부합하는 나무랄 데 없는 것이었다. 《漢書》는 斷代史이기 때문에 孔子를 위해 立傳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공자를 역사상 출현한 마지막 성인의 지위에 올려놓고 공자가 후세를 내려다보는 형식을 취한 셈이다. 그래서인지 공자의 제자와 맹자까지 유가의 인물들은 모두 上等級에 속하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반면에 다른 학파의 인물들은 그 모양이 심히 불평등한 정도이다. 道家의 창시인으로 漢初에 숭상을 받았던 老子는 中上에 배치하고 있다. 몇 명만 살펴보면, 莊子는 중하, 墨子는 중상, 商鞅·韓非는 중상, 孫臏은 중상, 孫武는 중중으로 분류하였다. 어떤 학파도 유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序〉에서 반고는 오로지 공자의 말을 일삼지, 기타 인물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표는 일견 보기에 황당할 정도로 소략하다. 古人들이 보기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개별 인물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예컨대 첫 인물인 太昊帝宓戲氏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다. 유명한 위인이라 설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마찬가지다. 공자와 같은 시대에 열거된 인물 중 固來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사고의 주석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설명이 있는 경우도 누구의 아들이나 아내라는 정도의 인척관계를 밝힌 것이 전부이다. 아무리 봐도 등급만을 매긴 것이지 표에서 인물의 내력이나 기타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표는 오로지 인물의 등급을 밝히기 위해 만든 것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다. 더욱이 이렇게 방대한 역사 인물을 품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반고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로 인해 〈古今人表〉는 애초부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문제작이었다.

13) 《周禮·春官·典命》 및 《禮記·王制》 참조.

## 2. 〈古今人表〉에 대한 비판 개술

《漢書》가 나온 뒤 사람들은 곧잘 《史記》와 비교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평을 다 살피기엔 지면의 제약이 있어 본고와 가장 유관한 자료만 살펴본다. 기실 《史記》와 《漢書》의 연구사에서 《漢書》는 唐代까지 줄곧 우위를 점하였다.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자료에서 엿보이는데, 14) 明代 胡應麟은 이에 대해 이렇게 개괄한다.

《史記》와 《漢書》의 우열에 대해서는 위진 이래 제설이 분분하여 정론이 없다. 그러나 반고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열에 일곱은 될 것이다. 당나라 한유와 유종원이 사마천을 높이 평가한 뒤부터 반고의 기세가 조금 꺾였다. 송나라에 들어와 정초<sup>15)</sup>와 유진옹이 다시 반고를 너무 지나치게 깎아내렸지만, 근거가 충분치는 않았다. 명대에 이르러 제론의 차이가 적어져 균형을 잡았다. (史漢二書, 魏晉以還, 紛無定說. 爲班左袒, 蓋十七焉. 唐自韓柳, 始一頌子長, 孟堅稍訕. 至宋鄭漁仲劉孟, 又抑揚過甚, 不足憑也. 明諸論騰差得其衷.)<sup>16)</sup>

唐代까지 지식인들에게 《漢書》는 중요한 고전으로 존중되어오다가 《漢書》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나온 것은 唐代 劉知幾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 비판의 단서가 된 것이 바로 〈古今人表〉이다.<sup>17)</sup> 물론 劉知幾도 《漢書》의 성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古今人表〉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면서 본의 아니게 《漢書》 비판의 출발이 되어 버렸다. 사실 어느 저작도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군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며 물꼬를 튼다면 그 후는 걸잡을 수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劉知幾의 비판은 《漢書》 전반을 부정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나, 이후부터 《漢書》의 비판에는 〈古今人表〉가 늘 등장

14) 范曄《後漢書》列傳第三十下 참조. 또한 《文心彫龍·史傳》편에서도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15) 鄭樵《通志·序》: 「班固者, 浮華之士也, 全無學術, 專事剽竊. …… 以古今人物彊立差等, …… 此則無稽之談也. …… 遷之於固, 如龍之於猪, 奈何諸史棄遷而用固, 劉知幾之徒 尊班而抑馬.」 아마 역사상 반고를 가장 심하게 비판한 언론이라 생각된다.

16) 《小室山房叢書》卷十三 史書估畢一.

17) 범론 수준의 비평은 있겠지만, 특정 부분에 대한 비판은, 〈古今人表〉에 대한 劉知幾로 보여 진다. 물론 필자의 조사와 소견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하게 되었고 순위에서도 항상 앞에 있게 되었다.

반고가 쓴 〈人表〉는古今을 제목으로 하였다. 수록한 바를 찾아보면 모두 秦나라 이전이고 漢代의 일이 아니다. 古는 있지만 今은 어디 있는가? (班固撰〈古今人表〉, 以古今爲目. 尋其所載也, 皆自秦而往, 非漢之事. 古誠有之, 今則安在?)

이상하구나. 반고의 〈古今人表〉는 구품으로 나누어 천년의 세월을 망라하였다. 논한 시기는 다른 시기고 언급한 인물들은 漢나라 이전 사람들이다. 위로는 복희 때부터 아래로는 秦나라까지 다하면서 한나라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는 《漢書》에 편입시켰다. (異哉! 班氏之人表也. 區別九品, 網羅千載. 論世則異時, 語姓則他族, 且其書上自庖犧下窮嬴氏不言漢事, 而編入漢書.)<sup>18)</sup>

劉知幾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古今이라며, 今人은 왜 없는가. 《漢書》는 斷代史인데 왜 체재를 무너뜨렸는가. 왜 시대의 경계를 넘어서 기록했는가. 또한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반고에 대한 자질 시비로 이어지기도 한다.<sup>19)</sup> 학자의 상이한 취향이 섞이기도 하는데 즉 반고가 무슨 자격으로 참람한 짓을 한 것인가라는 공격이다. 茅坤이 그 한 사례이다.

老子는 옛 聖人인데도 아랫자리에 놓여 있다.……左丘明은 仲尼에게 《春秋》를 배워 문장에 능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자유와 자하 사이에도 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아! 반고는 잘못을 저질렀다. 공자와 같은 성인도 감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말하려 하지 않아서 의심스러운 일은 꺾문으로 남겨둔다고 하지 않았는가. 반고는 어째서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 듣고 볼 수도 없는 수천 수백 년간의 일들을 자기 혼자서 견문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또 어째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평가해 차례를 매겨놓아 후세에 믿음을 얻으려고 했는가.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老子古之聖人而放於下位者也.……左丘明學《春秋》於仲尼而能文者也. 然不得列乎游夏之間.……噫, 固亦繆矣. 以孔子之聖, 猶不敢強其所不知, 而其言嘗曰吾猶及史之闕文也. 固何不自量其力而欲以一人之見聞, 取數千百年所不可盡聞與見之行事, 而品列次第之以取信於後世也. 其可得乎)<sup>20)</sup>

18) 두 인용문 모두 《史通》卷三 內篇 表曆第七에 있다.

19) 劉知幾는 《史通》內篇 品藻第二十三에서 「及至篇中所列, 奚不類於其叙哉」라며 잘못 된 사례를 열거하기도 하였다.

20) 《白華樓藏稿》卷九 〈讀班固漢書古今人物表〉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였다.<sup>21)</sup> 清代 章學誠의 말이 가장 포괄성이 있다고 하겠다.

〈古今人表〉의 단점은 아홉 등급으로 사람을 정해놓고 억지로 자리를 나누어 놓았고, 聖人·仁人·智人·愚人이라고 망령되이 품격을 정했으니 《春秋》의 근엄한 취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또한 劉知幾가古만 있고 今은 없는 것을 지적해 名과 實이 어긋난다고 했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人表之失, 不當以九格定人, 強分位置, 而聖仁智愚, 妄加品藻, 不得《春秋》謹嚴之旨. 又劉知幾摘其有古無今, 名與實舛, 說亦良允.)<sup>22)</sup>

조선의 경우도 張維<sup>23)</sup>와 正祖가 〈古今人表〉에 대해 비판했다.

〈古今人表〉는 더욱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니, 고금의 많은 성현과 호걸들을 등급을 나누어 取捨한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궁궐에 소장하고 있는 《漢書》에서도 즉시 그 편을 빼 버리도록 하라. (〈古今人表〉, 尤令人駭眼. 將千古多少聖賢豪傑, 分等取舍, 豈成體段. 內藏《漢書》, 並卽削其篇.)<sup>24)</sup>

이상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古今人表〉를 비판하였고 또 그 근거가 지금 보아도 타당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반고는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古今人表〉를 찬술했는가.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아래에서 말하고자 한다.

### Ⅲ. 〈古今人表〉 찬술 배경과 《史記》의 관계

우선 서론에서 몇 편의 기존 논문을 언급하며, 그 중 〈古今人表〉 찬술 배경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낸 王記錄과 비록 〈古今人表〉에 관한 저작은 아니지만, 《二十五史導讀辭典》을 거론한 바 있다. 그들의 논리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21) 呂祖謙《大事記·解題十》, 羅泌《路史後紀·十四》, 王觀國《學林·三》, 楊慎《升菴集·人表論》. 梁玉繩《漢書人表考·序》 참조.

22) 《文史通義》卷七 外篇二 亳州志人物表例議上

23) 《谿谷集·谿谷先生漫筆卷之二》 第二卷 〈班固作古今人表品第升降疏謬無據〉(서울,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92집, 1992.

24) 《弘齋全書·日得錄四》卷百六十四 文學[四](서울, 태학사) 1978.

《二十五史導讀辭典》은 《漢書》가 단대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通史를 지향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년대를 거슬러 기록하는 방식은 10志에서도 나타난다고 그것을 ‘上下洽通’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古今人表〉에서 드러난 것이라 주장 한다. 아울러 중국사 편찬에 우수한 전통을 세운 것이라 주장한다. 25)

王記錄은 같은 맥락에서 이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그는 會通이라는 말로 개괄하며, 이런 정신이 表와 志에 나타나고 紀傳부분에서는 〈古今人表〉로 들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마천의 ‘通古今之變’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6)

이런 의견도 일리는 있겠으나, 우선 지나치게 《史記》와 《漢書》가 계승 발전 관계라는 도식적 틀을 적용한다고 본다. 실로 일종의 학술적 애국주의 혹은 중화관의 새로운 투영이 아닌가 싶다. 오히려 필자는 반고가 사마천의 관점에 대해 의식적인 반발과 糾正의 차원에서 〈古今人表〉를 작성했다고 본다. 《漢書》가 《史記》의 체제를 답습했고 중국인들이 정한 正史의 첫째 둘째 자리를 이은 것만으로 그들이 모든 면에서 일맥상통하며 중국 역사를 같은 방향으로 보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과욕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반론을 소략하나마 개진해 보고자 한다.

## 1. 班氏 부자의 사마천 비판 분석

먼저 班氏 부자의 발언을 분석해보자. 班彪는 이렇게 말한다.

- 25) 「但却不明班固實是以此表達到人物列傳上“篇章博舉，通於上下”〈敘傳〉的旨意，是班固爲“上下洽通”而寓通於斷的一個重要作爲。10志以漢代爲主，上溯先秦，有的下限延及到班固著書的東漢時代，採取由源及流的方法，系統而且詳細地敘述各種歷史現象-包括典章制度，人文地理和學術文化的來龍去脈。《漢書》志體突破斷代，上補《史記》不足的作法，爲我國史學編纂史開創了一個優良的作風。」 91쪽.
- 26) 如上所述，《漢書》表、志都體現出班固的會通思想，但《漢書》是一部紀傳體史書，而紀傳體史書是以人爲綱，以人係事的。班固的會通思想是不是只體現在志表中，而沒有體現在紀傳中呢？顯然不是。如果是那樣的話，這種會通思想就是不全面的。那麼，紀傳部分的會通思想又是通過怎樣的形式來體現的呢？依我的看法，就是通過《古今人表》。……但班固又不能一一爲這些研究過的人物立傳，因爲他要創造一種新的著史格局。如一一爲漢以前人物立傳，勢必寫成又一部《史記》，實屬不必。但司馬遷“通古今之變”的思想對他影響很大，所以他就變換了一下體例，用表的形式廣納古往今來的衆多人物，以體現自己的會通思想。可以說，《人表》實際上就是班固研究漢以前人物資料後的結晶，形式上是表，而實際上是不置一辭的人物傳，是銜接後面的紀傳的。69-70쪽.

사마천이 기록한 바,……논의에는 깊은 데가 없다. 학술을 논할 때면 黃老를 중시하고 유가의 五經을 소홀히 하며, 貨殖을 서술할 때는 仁義를 가볍게 여기고 빈궁함을 부끄러워 한다. 유희를 말할 때는 절의를 천하게 여기고 세속적인 공적을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그가 크게 잘못을 저지르고 유가의 도를 해친 부분이며, 극형이라는 재앙을 받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사리를 조리 있게 잘 서술하고 있다. 변론을 잘 하지만 결코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으며, 꾸밈이 없고 소박하지만 거칠고 저속한 필치는 아니다 이렇듯 문과 질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뛰어난 역사가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가 五經의 올바른 말에 근거해 聖人の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의 시비선악을 논했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책이 되었을 것이다. (遷之所記,……論議淺而不篤. 其論術學, 則崇黃老而薄五經; 序貨殖, 則輕仁義而羞貧窮; 道游俠, 則賤守節而貴俗功: 此其大敝傷道, 所以遇極刑之咎也. 極刑謂遷被腐刑也. 然善述序事理, 辯而不華, 質而不野, 文質相稱, 蓋良史之才也. 誠令遷依五經之法言, 同聖人之是非, 意亦庶幾矣.)<sup>27)</sup>

아버지 반표의 뒤를 이어 반고는 《漢書·司馬遷傳》에서 이렇게 말한다.

經에서 취하고 傳에서 모은 사료를 다루며, 몇몇 사람의 기록을 쪼개고 나눠서 사용해 요약한 점이 매우 많고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다만 그가 섭렵한 사료의 범위가 넓고 경과 전을 꿰뚫으며 고금을 달려 상하로 수 천년에 걸쳐 있는 것은 부단히 애써서 이룬 성과이다. 하지만 그가 역사적 시비선악을 논한 부분은 성인의 뜻에 크게 어긋난다. 그래서 大道를 논함에 黃老를 앞세우고 六經을 뒤로하며, 遊俠을 서술함에 處士를 배척하고 奸雄을 추켜 세우며, 貨殖을 말함에 권세와 이익을 존중하고 빈천을 부끄러워 한다. 이것이 그의 어리석은 점이다. (至於采經摭傳, 分散數家之事, 甚多疏略, 或有抵牾. 亦혹其涉獵者廣博, 貫穿經傳, 馳騁古今, 上下數千載間, 斯以勤矣. 又其是非頗繆於聖人, 論大道則先黃老而後六經, 序遊俠則退處士而進姦雄, 述貨殖則崇勢利而羞賤貧, 此其所蔽也.)<sup>28)</sup>

두 사람의 견해는 일맥상통한다. 당시 家學의 계승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대를 이어 史書를 집필한 사마천의 경우도 家學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들의 언론을 검토해 보자. 班氏 부자는 사마천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지지한다. 문제의 요체는 사마

27) 《後漢書·班彪傳》

28) 《漢書·司馬遷傳》

천의 세계관이다.

우선 필자는 반표의 “사마천이 五經의 올바른 말에 근거해 聖人の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의 시비선악을 논했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책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반고의 “그가 역사적 시비선악을 논한 부분은 성인의 뜻에 크게 어긋난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싶다. 두 사람 모두 사마천은 《史記》를 저술할 때, 성인에 근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역사에 대한 시비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가 先黃老而後六經, 序遊俠則退處士而進姦雄, 述貨殖則崇執利而羞賤貧로 나타난 것이다.<sup>29)</sup> 물론 《史記》가 우세한 후로 반씨 부자의 비판은 맹공을 받았고 현재는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東漢이라는 시대로 돌아가 《史記》를 본다면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지면 제약으로 유가와 도가의 문제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이로 인해 뒤의 문제도 파생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司馬遷은 유가와 도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물론 孔子를 〈世家〉에, 老子를 〈列傳〉에 편입한 것만으로도 그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 단순하게 보기 어려운 것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太史公自序〉의 문제이다. 거기에는 사마천이 부친에게 받은 중요한 학문관이 모두 나타난다. 바로 유명한 〈論六家之要旨〉이다. 司馬談의 〈論六家之要旨〉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우선 陰陽, 儒, 墨, 名, 法, 道德의 순으로 간단한 개괄을 한 뒤,<sup>30)</sup> 후반부는 다시 각 가의 장단점에 대하여 자세히 부연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도가가 분량과 비중이 가장 크고, 무결점의 사상으로 칭찬 받고 있다. 그 중 도가 부분의 제요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자.

29) 반고의 표현을 차용하였다. 반표의 표현대로라면 崇黃老而薄五經, 序貨殖則輕仁義而羞貧窮, 道游俠則賤守節而貴俗功이라 할 수 있다.

30) 夫陰陽、儒、墨、名、法、道德, 此務爲治者也, 直所從言之異路, 有省不省耳. 嘗竊觀陰陽之術, 大祥而衆忌諱, 使人拘而多所畏; 然其序四時之大順, 不可失也. 儒者博而寡要, 勞而少功, 是以前事難盡從; 然其序君臣父子之禮, 列夫婦長幼之別, 不可易也. 墨者儉而難遵, 是以前事不可遍循; 然其彊本節用, 不可廢也. 法家嚴而少恩; 然其正君臣上下之分, 不可改矣. 名家使人儉而善失真; 然其正名實, 不可不察也. 道家使人精神專一, 動合無形, 瞻足萬物. 其爲術也, 因陰陽之大順, 采儒墨之善, 撮名法之要, 與時遷移, 應物變化, 立俗施事, 無所不宜, 指約而易操, 事少而功多. 儒者則不然, 以爲人主天下之儀表也, 主倡而臣和, 主先而臣隨. 如此則主勞而臣逸. 至於大道之要, 去健羨, 紬聰明, 釋此而任術. 夫神大用則竭, 形大勞則敝. 形神騷動, 欲與天地長久, 非所聞也.

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집중시켜 행동을 무형의 도에 합치하게 하고, 또한 만물을 풍성하게 한다. 그들의 학술은 음양가의 사시 운행의 큰 순서에 의거하여 유가와 묵가의 선을 취하고, 명가와 법가의 요점을 취하여,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사물에 응하여 변화며, 좋은 풍속을 세워 일을 시행하니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그 요지는 간명하면서도 시행하기 쉽고, 애쓰는 것은 적으나 거두는 효과는 높다. (道家使人精神專一，動合無形，瞻足萬物。其爲術也，因陰陽之大順，采儒墨之善，撮名法之要，與時遷移，應物變化，立俗施事，無所不冝，指約而易操，事少而功多.)

모든 학파의 장점을 갖춘 완벽한 사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유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이에 비하여 유가의 학설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군주가 천하의 법도이므로, 군주가 그 무엇이든 제창하면 신하는 여기에 호응해야 하고, 군주가 앞서서 나가면 신하는 그 뒤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행한다면 군주는 힘들지만 신하는 편안하다. 도가에서 말하는 대도의 요체는 강함과 탐욕을 버리고 지혜를 버리는 것인데, 유가는 이런 것을 유의하지 않고 다만 지술에 의지하여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다. 대저 인간의 정신은 지나치게 사용하면 소진하고 육체는 지나치게 혹사하여 지치게 되면 병이 나는 법이다. 정신과 육체가 망가지면서 천지와 더불어 장구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儒者則不然。以爲人主天下之儀表也，主倡而臣和，主先而臣隨。如此則主勞而臣逸。至於大道之要，去健羨，絀聰明，釋此而任術。夫神大用則竭，形大勞則敝。形神騷動，欲與天地長久，非所聞也.)

후반부에 다시 유가의 장단점을 부연 설명하는데, 유가의 경우는 다음같이 단출하다.

유가는 육예를 규범으로 삼는다. 육예의 경문과 전문은 천이나 만으로 헤아릴 정도여서, 누대에 걸쳐서도 그 학문에 정통할 수 없고, 한 평생을 다해도 그 예조차 모두 알 수 없다. 그래서 유가의 학설은 장황하기만 하고 요점은 부족하며, 애만 쓰고 이룬 공적은 적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가가 군신 부자 사이의 예의와 부부 장유 사이의 구별로 질서를 세운 공적은 다른 어떤 학설도 대신할 수 없는 점이다. (夫儒者，以六藝爲法，六藝經傳以千萬數，累世不能通其學，當年不能究其禮，故曰「博而寡要，勞而少功」。若夫列君臣父子之禮，序夫婦長幼之別，雖百家

弗能易也.)

유가로서는 참담한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이다.〈論六家之要旨〉의 마지막은 대량의 문자를 써서 도가를 극찬하며 맺는다.<sup>31)</sup> 事少而功多의 도가와 博而寡要, 勞而少功의 유가. 누가 봐도 黃老에 기울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물에 응하여 변화하는 도가와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유가. 게다가 사마천이 노자열전에서 공자가 그에게 배웠다는 말까지 써 넣은 것을 상기해보면 司馬氏의 생각은 분명 노자에 대해 우호적이고 친근하다. 〈遊俠列傳〉과 〈貨殖列傳〉도 비판 받을 소지의 발언이 적지 않다. 《史記》〈貨殖列傳〉의 발언을 살펴보자.

부를 쌓는 것에 특정한 직업은 없으며, 재화도 그 주인이 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재화가 점점 모이며, 어리석은 자에게는 흩어진다. (富無經業, 則貨無常主, 能者輻湊, 不肖者瓦解.)

만약 집이 가난하고 아버이는 늙고 처자식은 연약하며, 때가 되어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어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음식과 옷을 만족하지 못하고 부끄러워 않는다면 이런 자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에 사는 선비의 행동도 없으면서 오랫동안 빈천하면서 인의를 운운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家貧親老, 妻子羸弱, 歲時無以祭祀, 飲食被服不足以自適, 如此不慙恥, 則無所比矣.……無巖處奇士之行, 而長貧賤, 語仁義, 亦足羞也)

사마천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부정적이지 않다. 돈을 번 사람을 인정한다. 그리고 제 살림도 못 꾸리면서 仁義 타령하는 處士들을 비웃고 있다. 〈遊俠列傳〉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31) 道家無爲, 又曰無不爲, 其實易行, 其辭難知. 其術以虛無爲本, 以因循爲用. 無成勢, 無常形, 故能究萬物之情. 不爲物先, 不爲物後, 故能爲萬物主. 有法無法, 因時爲業; 有度無度, 因物與合. 故曰: 聖人不朽, 時變是守. 虛者道之常也, 因者君之綱也. 群臣並至, 使各自明也. 其實中其聲者謂之端, 實不中其聲者謂之窾. 窾言不聽, 姦乃不生, 賢不肖自分, 白黑乃形. 在所欲用耳, 何事不成. 乃合大道, 混混冥冥. 光耀天下, 複反無名. 凡人所生者神也, 所託者形也. 神大用則竭, 形大勞則敝, 形神離則死. 死者不可復生, 離者不可複反, 故聖人重之. 由是觀之, 神者生之本也, 形者生之具也. 不先定其神形, 而曰: 我有以治天下, 何由哉.

遊俠의 경우, 그 행위가 반드시 정의에 의거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었고 행동은 과감하였으며 이미 승낙한 일은 반드시 성의를 다하였다. 몸을 아끼지 않고 위험에 뛰어들어 생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공덕을 내세우는 것을 수치로 삼았다.……지금 학문에 구속되거나 혹은 하찮은 의리를 품은 채 오랫동안 세상과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찌 격을 낮추고 세속에 동조하여 시대의 조류에 따라 부침하여 명예를 얻는 것과 같겠는가.(今遊俠, 其行雖不軌於正義, 然其言必信, 於行必果, 已諾必誠, 不愛其軀, 赴士之厄, 蓋有足多者.……今拘學或抱咫尺之義, 久孤於世, 豈若卑論齊俗, 與世沈浮而取榮名哉!)

사마천의 식견이 시대를 초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념을 배제하고 이 글을 보면 班氏 부자가 사마천을 비판한 것도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2. 《漢書》의 취지에 대한 검토

《漢書》의 기록은 위에 인용된 《史記》의 취지와는 상반된다. 우선 유가의 경우, 《漢書》〈藝文志〉의 차례를 보면, 六藝略, 諸子略 등의 순서이다.<sup>32)</sup> 六藝略은 유가경전을 다루고 諸子略에서도 우선 유가를 거론한 뒤, 도가 음양가 법가의 순서로 제자를 소개한다. 학과보다 우선 유가경전이고, 그 학과에서도 유가가 우선이다. 그리고 諸子略을 마무리 하며 이렇게 말한다. “제자 10가 중에 불만한 것은 9가일 뿐이다.……비록 폐단이 있지만 그 요지를 귀납하면 역시 六經의 지류이다.(諸子十家, 其可觀者九家而已.……雖有蔽短, 合其要歸, 亦六經之支與流裔.)” 이것을 볼 때, 반고의 사상은 先六經而後諸子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前漢 최고 유학자인 董仲舒의 경우를 보아도 사마천은 그를 위해 立傳하지 않았고, 〈儒林列傳〉에서 간단히 언급할 뿐이다. 그러나 《漢書》의 경우, 동중서를 위해 立傳하고 그 편 폭이 상당한 분량이며 그의 언론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 유명한 天人三策도

32) 물론 이것은 劉歆 부자의 〈七略〉의 편차를 계승한 것이겠지만, 반고 자신의 가치관의 표명이기도 하다. 게다가 〈七略〉이 망실된 후 후세 모든 〈藝文志〉와 〈經籍志〉는 그 편차순서가 반고의 영향을 받았고, 후일 經史子集의 분류로 귀착되어 유가 경전의 지위는 요지부동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반고의 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漢書》는 모두 수록하고 있지만, 사마천은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

《漢書》에도 〈貨殖傳〉, 〈遊俠傳〉이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돈을 번 자들이 부정을 행한 일, 그리고 몰락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돈을 번 자와 돈벌이에 열중하는 것을 ‘사치하고 분수를 몰라 도리에 어긋나다 「不軌奢僭」’고 하며, 〈貨殖傳〉 마지막 말은 ‘위아래를 망치고 어지럽히는 길 「上下敗俗 大亂之道」’이라며 사회의 교화와 풍속을 해치는 큰 혼란의 길로 평가하였다. 遊俠의 경우도 조정의 권위와 맞선 불법적인 권력자들로 평가한다. “미미한 匹夫로서 생사의 권력을 훔쳤으니 그 죄는 이미 죽음을 면할 수 없다 「以匹夫之細, 竊殺生之權, 其罪已不容於誅矣」”라고 비판한다.

사마천의 시대에는 유교가 後漢처럼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의 발언은 아직까지 자유로운 학술 기풍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한시대에 살던 반고는 사마천의 자유로운 관점에 동의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반고는 유가가 국가 권력을 독점한 후한시기의 인물이다. 아직 국가 권력이 지방을 장악하지 못하고 유가가 지배이념이 아닌 前漢 初期에 나타난 일련의 사회 현상은 그에게 불편했을 것이고, 그 중 간사하고 법을 어기는 상인과 헐객들이 눈에 가시처럼 들어 온 것이다. 유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결코 선량한 신민이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물론 사마천은 결코 공자를 비판하거나 유교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 《史記》에서 사마천은 공자와 유가에 대해 충분한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사마씨 집안은 반씨 일가와는 다른 객관적, 물론 지금의 관점이겠지만, 유가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었다. 혹자는 〈論六家要旨〉가 사마천이 아닌 사마담의 견해라 치부하지만 그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老子列傳〉에서 공자가 노자에게 배웠다는 기록을 삽입한 것도 사마천 자신이 아닌가.

사마천이 아버지 사마담의 말을 반대하거나 동조하지 않으면서 〈自序〉에 그렇게 길게 인용하여 넣었을 리가 만무하다. 또한 漢나라의 사회 기풍상 아버지의 학문과 위배되는 견해를 아들이 갖는 것은 큰 불효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한나라 당시 師法과 家學을 고수하는 것은 폐쇄적일 만큼 엄격했다. 반고가 반표의 사관을 계승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아올러(自序)에서 보이듯 사마천은 자신의 《史記》 편찬



은 아버지의 유혹에 의한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발언자가 사마담이라고 해서 아들인 사마천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따라서 《史記》의 기록은 분명 사마씨의 史觀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아울러 유험과 화식의 기록은 사마천의 필적이 분명하니, 반씨 부자의 비판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듯 《史記》의 명성은 전통시대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있다. 이런 사정으로 사마천에 대한 비판은 일종의 인신공격이나 반고의 식견이 모자란 탓으로 치부되는 것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전대 학자들 가운데 반고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 중 대표적인 발언을 보자. 《史記》 주석자로 유명한 張守節은 아예 사마천이 도가를 중시한다고 선언한다.

大道는 자연에서 품수된 것으로 일컬을 수 없다. 道는 天地사이에 있고, 하늘보다 먼저 생겼다. 이름을 몰라 道라고 부른 것이다. 黃帝와 老子가 이 道를 숭상했다. 그러므로 太史公이 道를 논함에 黃帝와 老子를 우선으로 하고 六經을 다음으로 해야 했다. (大道者, 皆稟乎自然, 不可稱道也. 道在天地之間, 先天之生, 不知其名, 字之曰“道”. 黃帝、老子遵崇斯道, 故太史公論大道, 須先黃老而後六經.)

朱子는 蘇軾의 〈古史〉를 인용하며 사마천 비판에 동의한다.<sup>33)</sup> 장병린은 반고의 비판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史記》와 《漢書》의 우열을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sup>34)</sup>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반고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동의한다. 蘇軾의 경우는 더욱 구체적이다.

나는 사마천이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黃老를 앞세우고 六經을 뒤로 한 것과, 處士를 몰리고 奸雄을 내세운 것은 대개 사소한 일들일 따름이다. 내가 말하는 큰 죄 두 가지는, 商鞅과 桑弘羊의 공적을 논한 것이다. 漢나라 이후로 학자들이 商鞅과 桑弘羊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긴다. 그러나 임금들은

33) 朱熹《朱子語類》卷百十二「子由古史言馬遷, 淺陋而不學, 踈畧而輕信, 此二句最中馬遷之失。」

34) 章炳麟《制言》1937 第五三期〈略論讀史之法〉:「史公重視遊俠, 其所描寫, 皆虎虎有生氣, 班氏反之, 謂之亂世之奸雄, 其言實亦有理, 是故史漢之優劣, 未可輕易下斷語也。」

유독 달갑게 여긴다. 대개는 겉으로는 그 이름을 꺼리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고, 심한 임금은 드러내 놓고 떠받든다. 이런 행태가 거의 성공할 뻔 했는데 이것은 사마천의 죄이다. (吾嘗爲遷有大罪二，其先黃老，後六經，退處士，進姦雄，蓋其小小者耳。所謂大罪二，則論商鞅桑弘羊之功也。自漢以來，學者恥言商鞅桑弘羊，而世主獨甘心焉，皆陽諱其名而陰用其實，甚者則名實皆宗之，庶幾其成功，此則司馬遷之罪也.)

이 말을 이어서 秦나라가 霸業의 기초를 쌓은 것은 孝公의 능력 때문이지 상앙의 공이 아니고, 상홍양은 均수·평준법 등의 잔피를 부린 자인데 그 덕분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임금이 넉넉해졌다고 말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취지다.<sup>35)</sup>

요컨대, 상앙은 각박한 법가의 방법을 썼고, 상홍양의 경우는 국가 전매제도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세수를 증가시킨 관료이다. 소식이 보기에, 반고는 당연한 비판을 한 것이고 오히려 적은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반고는 사마천의 심중에 더욱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을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상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면 반고의 사마천 비판은 결코 억지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위에 열거한 명망 있는 학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고의 논지에 찬동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 3. 〈古今人表〉 찬술 의도 재분석

반고와 사마천, 두 사람의 저서는 목적과 배경이 달랐기에 관점에서 차이가 생겼다. 사마천은 태사공이지만 그 본분은 史書 편찬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 《春秋》를 계승하겠다는 개인적 포부에서 시작하였다. 그는 결코 皇帝의 명으로 國史를 편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성패로 사람을 논하지 않고 역사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인물을 평가하는 독창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 불행으로 發憤著作의 심정도 토로하였다. 이에 반해 반고는 개인적으로 國史

35) 《東坡志林》：“秦固天下之強國，而孝公亦有志之君也，脩其政刑十年，不爲聲色畋遊之所敗，雖微商鞅，有不富強乎？秦之所以富強者，孝公務本力穡之效，非鞅流血刻骨之功也。而秦之所以見疾於民，如豺虎毒藥，一夫作難而子孫無遺種，則鞅實使之。至於桑弘羊，斗筭之才，穿窬之智，無足言者，而遷稱之，曰“不加賦而上用足。”

를 쓰던 중, 고발까지 당했으나 皇帝가 그 원고를 검열하고 만족하여 蘭臺令史라는 벼슬을 주며 황실 자료를 열람하게 하며 만든 책이다. 여기서 우리는 史書에 대한 조정의 민감한 반응을 볼 수 있다. 이는 前漢에는 없던 모습이다. 《漢書·敘傳》의 기록을 보면, 반고는 堯·舜·禹 세 임금도 글을 통해서 그 영광이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漢書》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sup>36)</sup> 확연하게 그는 漢나라를 찬송하기 위해 史書를 집필했다. 따라서 황제의 지원을 획득한 것이다. 반고 〈典引〉에 보면 다음 같은 말이 있다.

사마천은 책을 지어 일가의 말을 이루어 후세에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형벌을 받은 이유로 도리어 은미한 글로 당시 사회를 비판했다. 옳은 선비가 아니다. (司馬遷著書成一家言, 揚名後世, 至以身陷刑之故, 反微文刺譏, 貶損當世, 非諂士也.)<sup>37)</sup>

이 말의 발언자는 당시 皇帝인 明帝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漢書》를 어떻게 써야했는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명백하다. 漢武帝에 대한 사마천의 비판은 너무 잘 알려진 일이고, 《史記》는 漢 高祖 다음에 呂后가 실권자 이기에 그 아들 惠帝를 삭제하고 呂后만 〈本紀〉에 편입했지만, 《漢書》는 惠帝를 〈本紀〉에 복권시켰다. 항우는 황제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을 고려한 《史記》에서는 〈本紀〉를 차지하나, 반고는 항우를 〈列傳〉으로 낮추었다. 이에 반해 王莽은 명실상부한 황제에 올랐지만 《漢書》에서는 〈傳〉의 끝에 넣었다. 이는 두 사람의 저작 배경과 이로 인한 역사관의 차이가 만든 결과이다. 다른 예를 보자. 《史記》가 黃帝로 〈本紀〉의 처음을 시작하는 것은 黃老術을 존중한 漢初의 상황에서 괴이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皇帝가 유가의 領袖를 자임하며 경전의 표준을 정하고자 친히 회의를 주재하는 후한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반고는 그 백호관 회의의 기록을 책임지고 책으로 펴낸 사람이었다. 이런 제반 정황을 볼 때, 《史記》와 《漢書》는 상통점도 있지만, 상이점도 클 수밖에 없었다. 분명 《漢書》는 한나라의 정통성과 업적을 선양하는 책이고 황실과 조정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탄

36) “固以爲唐、虞三代，詩書所及，世有典籍，故雖堯、舜之盛，必有典謨之篇，然揚名於後世……太初以後，闕而不錄，故探纂前記，綴輯所聞，以述漢書。”

37) 《文選》卷四十八.

생했다.

이상의 정황을 감안하면서, 다시 〈古今人表〉의 문제를 고찰해 본다. 필자는 〈古今人表〉의 공정성 문제는 인물마다 낱말이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古今人表〉의 포괄 시기를 살피는 것이 문제의 핵심에 가깝다고 본다. 기실 누가 누구를 평가하던 그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시대 환경 처지에 따라 천변만화한다. 만인이 모두 수긍하고 인정하는 평가란 역사에서는 가설일 뿐이다. 설령 그런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종의 도그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상고전설시기부터 秦末까지가 〈古今人表〉의 대상 시기임을 주목한다. 이 시기는 《漢書》에서 다룰 수 없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대로, 바로 《史記》가 다룬 부분이기 때문이다. 《漢書》는 漢代를 위주로 한 역사책이 분명하다. 따라서 시대를 거슬러 인물 평가를 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본장 서론에서 본 것처럼, 비록 중국학자들이 《漢書》가 通史를 지향한 책이라 〈古今人表〉가 탄생했다고 예증을 들지만 그것은 기계적인 논리일 뿐이다. 제도와 문화의 연원과 흐름을 밝힌 것과 인물의 등급을 새롭게 확정 짓는 것은 다른 성질의 일이기 때문이다.

漢代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顏師古는 “《漢書》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8)</sup> 일종의 순진한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班昭와 馬續이 《漢書》를 이어서 완성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반고가 미완성으로 남겼다면 왜 이어 쓰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반고의 붓이 하필 진나라에서 멈춘 것일까 하는 문제다. 이를 의식한 듯 더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다. 何焯은 “今人是《漢書》안에 포괄이 갖추어져 있다. 비록古今의 요약을 총괄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古를 통해 今을 알고자 한 것이다. 「今人則褒貶具于書中，雖云總備古今之略要，實欲因古以知今也」”라고 했다.<sup>39)</sup> 今人は《漢書》에서 다 다루었고, 그들의 등급은 이 표에 준해서 보라는 의도이다. 錢大昕도 《廿二史考異》에서 말했다. “今人は 표로 만들 수 없다. 古人을 표로 하여 今人の 거울로 삼았다. 「今人不可表，表古人以爲今人之鑒」”<sup>40)</sup> 즉, 漢代의 인물에 대해서

38) 《漢書》顏師古注：「但次古人而不表今人者，其書未畢故也。」

39) 何焯《義門讀書記》第十六卷〈前漢書·表志〉(北京，中華書局，2006)

40) 《廿二史考異》卷六(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4)

는 직접 말하기 어려우니 〈古今人表〉에 근거해서 今人을 비추어 보라는 것이다. 두 설 모두 일리는 있으나 이것은 〈古今人表〉가 행간에 수를 포괄했음을 강변하는 측면이 강하다. 만약 반고가 살던 東漢을 다룬 책이라면 모르겠으나, 《漢書》는 분명 西漢시대를 다룬 역사책이다. 따라서 황제를 제외한 인물들에 대하여 반고가 기술적으로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東漢조정에서 동의하는 忠逆賢愚是非의 기준을 가지고 표를 완성한다면 더욱 조정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은 반고를 무리하게 변호하는 혐의를 벗기가 힘들다. 이들은 ‘古今’의 ‘수’를 과하게 의식한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사마천의 시비와 의론이 聖人과 다르다고 판단한 반고가 〈古今人表〉를 지어 《史記》에 공박을 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범위는 西漢 이전의 역사면 충분한 것이었다. 西漢은 자신이 다 포괄한 책을 새로 썼기 때문이다. 혹자들이 사마천의 기록을 《漢書》가 표절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종의 오해에 속한다. 《漢書》는 《史記》의 문장과 기록을 채용하는 것에는 불만이나 거부감이 없다. 반씨 부자는 이미 사마천의 문장력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있다. 양자의 진정한 차이는 시비, 즉 평론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반고가 생각하기에 전한 시대는 자신이 새로 시비를 가렸으나, 그 이전은 《漢書》가 斷代史이므로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부득이 〈古今人表〉를 만들어 五經, 仁義, 守節이라는 기준으로 인물을 품평한 것이다. 물론 〈古今人表〉에 들어간 인물에 매겨진 등급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와 설명도 부연되지 않는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들의 사적은 사마천이 이미 서술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그들에 대한 사마천의 평가가 잘못되었기에 반고가 새롭게 품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고는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마천의 시비와 평가가 후세에 이의 없이 받아들여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淸나라 錢大昕은 이런 뜻을 포착한 것 같다.

이 표가 후세 사람들에게 비판과 질책을 받아온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표가 正學을 밝히고 있고 名教에 공로가 있으며, 다른 자들이 따르지 못할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서 유독 좋아한다. (此表爲後人詬病久矣, 予猶愛其表章正學, 有功名教, 識見實非尋常所能及.)<sup>41)</sup>

41) 《潛研堂文集》卷二十八〈跋漢書古今人表序〉.

錢大昕은 正學, 名教, 識見이라는 말로 〈古今人表〉가 유가 정신에 부합된다고 본 것이다. 반고의 뜻을 긍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조선 李瀼의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班孟堅이 〈古今人表〉를 만들었는데,……사람이란 才德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고, 悖亂보다 더 천한 일이 없다. 혹 세대가 멀어짐에 따라 사실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군자와 소인의 마음이 후세에 제대로 나타날 수 없으니, 이것이 志士와 仁인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분개하는 바다.

반고가 周·秦 이전의 典籍을 자세히 얻어 보고 그들의 心迹에 따라 누르기도 높이기도 하여 斷案을 내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去取하도록 하였으니, 그의 의견이 또한 좋다 하겠다.……이 한 글에 힘입어 찬고에 숨겨져 모르도록 한 자취가 드러났으니, 또한 통쾌하다 하겠다. (班孟堅爲古今人表,……人莫貴於才德, 莫賤於悖亂, 或世遠事堙, 君子小人之情實不得暴, 於後世, 是志士仁人之所以扼腕憤慨也. 孟堅猶得見周秦以前典籍之詳, 燭其心迹抑揚爲斷案, 使人有所去取, 其意亦善.……賴此一書發千古掩味之迹, 亦快哉<sup>42)</sup>)

세대가 멀어짐에 따라 사실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시비가 전도될 것이라 간파한 이익의 견해는 반고의 심정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자신이 지금 《史記》를 규정하지 않으면 뒤로 가서는 사마천의 의견이 정설로 굳어질 것이다. 반고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필자는 이익이 사용한 心迹이라는 말이 정곡을 찌른 것이라 생각한다. 事迹이 아니라 心迹, 심적을 보는 것은 단순한 史官이 아닌 儒家화된 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익에게 흔쾌했다는 것이다. 〈古今人表〉는 두 사람이 보기에 名教를 위해 心迹을 따진 등급표였던 것이며, 그래서 그 識見은 非尋常所能及이며, 그 意는 善한 것이다. 필자는 이 두 사람이 반고가 후세에 기대했던 바를 정확히 짚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IV. 결론

〈古今人表〉는 일종의 古代 인물 사전이다. 《史記》 이래 중국사서는 인물 중심의 기록으로 바뀐다. 《漢書》에 〈古今人表〉가 있는 것도 그런 추세를 반영한다. 반고는

42) 《星湖僊說》卷二十三 〈古今人表〉(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사마천의 是非가 孔子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에 〈古今人表〉를 작성하여 사마천의 평가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古今人表〉의 작성이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월권이라는 평가로 인해 그 찬술 배경에 관해서는 홀시된 바가 적지 않았다. 본고는 여러 기록에 근거하여 〈古今人表〉는 현대 이전 역사에 대한 반고 나름의 새로운 역사 세우기라고 생각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漢書》의 다른 志나 表가 前代의 일을 기록한 것을 들며, 〈古今人表〉 또한 《史記》의 ‘通古今之變’을 계승한 일종의 會通, 洽通이라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일종의 학술적 중화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고는 분명 사마천의 시비판단에 대해 오류라 지적하였고 이것을 수정하고자 〈古今人表〉를 작성했다는 것을 여러 정황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을 〈藝文志〉 등과 연계하여 설명하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원류와 흐름을 밝힌 것이라 주장하는 것도 불가하다. 왜냐하면 〈古今人表〉는 채점만 해 놓았지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한 인물이 다른 인물과 관련성 없이 개별적으로 점수를 받는 것이다. 〈古今人表〉는 斷代史를 쓰되 시비가 어긋난 사마천이 손댄 이전 시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다. 반고는 사마천의 평가가 독점한 시기에 대한 규정과 견제로 이 표를 완성했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본고는 반고의 학술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白虎通義》와 〈五行志〉를 더욱 자세히 고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參考文獻】

- 司馬遷 裴駟集解 司馬貞索隱 張守節正義,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73.  
 班固 顏師古注, 《漢書》, 北京, 中華書局, 2005.  
 范曄 李賢注,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5.  
 劉知幾 趙呂甫注, 《史通》, 重慶, 重慶出版社, 1990.  
 陳其泰 趙永春, 《班固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2.  
 劉知幾 浦起龍、呂思勉, 《史通釋評》, 臺北, 華世出版社, 1981.  
 錢大昕, 《潛研堂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9.  
 章學誠 葉瑛校注, 《文史通義校注》, 北京, 中華書局, 1985.  
 何焯, 《義門讀書記》, 北京, 中華書局, 2006.

- 《二十五史導讀辭典》，北京，華齡出版社，1991。  
梁玉繩，《漢書人表考》，北京，中華書局，1985。  
王利器·王貞珉，《古今人表疏證》，濟南，齊魯書社，1988。  
張蓓蓓，《〈漢書·古今人表〉對《論語》中人物的品第》，《孔孟月刊》1985 第24권 3기。  
丁毅華，《〈漢書·古今人表〉識要》，《華中師範大學學報》1987 第5기。  
劉詠聰，《〈漢書〉斷代爲史說獻疑—〈古今人表〉之撰作爲例》，《文獻》1988 第1기。  
王記錄，《〈漢書·古今人表〉撰述趣旨新探》，《山西師範大學報》1996 第23권 2기。  
翁聖峯，《〈漢書·古今人表〉試論》，《國文學報》1998 第13집。  
張蓓蓓，《漢晉人物品鑒研究》，臺灣大學中文研究所 博士論文，1983。  
朝鮮 正祖，《弘齋全書》，서울，태학사，1978。  
朝鮮 張維，《谿谷集》，서울，민족문화추진회，1992。  
朝鮮 李瀾，《星湖僊說》，서울，민족문화추진회，1977。

### 【中文提要】

班固爲古今人表，以人爲經，以品第爲緯按九品分九欄，專譜列前漢以前歷史人物。後人對此多有異議。或譏曰其有古無今，名與實舛，或貶云品第升降疏謬無據。而幾位前哲猶愛其表章正學，有功名教，識見實非尋常所能及。本稿斟酌前賢之說，試探古今人表撰述背景。當今中國學人宣稱，此表達到上下洽通，體現出班固的會通思想云云。此說似是而非也。其實班固之所以爲此表者，針對史記，糾正其史論之所蔽也。班氏云史遷是非頗繆於聖人，論大道則先黃老而後六經，序遊俠則退處士而進姦雄，述貨殖則崇勢利而羞賤貧。愚案班氏恐世遠事堙，君子小人之情實不得見。其言實亦有理，是故人表之功過，未可輕易下斷語也。

### 【主題語】

漢書 古今人表 班固 史記 司馬遷

투고일: 2011. 1. 25 / 심사일: 2011. 2. 1~2. 12 / 게재확정일: 2011. 2. 15